

시월을 추억함

나호열

서러운 나이 그 숨찬 마루턱에서

서서 入寂한 소나무를 바라본다

길 밖에 길이 있어

산비탈을 구르는 노을은 여기저기 몸을 남긴다

生이란 그저 神이 버린 낙서처럼

아무렇게나 주저 앉은 풀꽃이 있을까

하염없이 고개를 꺾는 죄스런 보습

아니야 아니야 머리 흔들 때마다

우루루 쏟아져 나오는 검은 씨앗들

타버린 눈물로 땅 위에 내려앉을 때

가야할 집 막막하구나

그렇다 그대 앞에 설 때 말하지 못하고

몸 뒤채며 서성이는 것

몇 백 년 울리는 것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던가

香氣를 버리고 빛깔을 버리고

있을 버리는 나이

턱 빈 기억 속으로

혼자 가는 발자국 소리 가득하구나

<종교컬럼>

이현구 목사

초대 교회 담임

그 곳 이름, 길갈



(수5: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번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브온 전투입니다. 이 전투를 시작으로 남방 유다 전체를 다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롬 물가 전투입니다. 메롬 물가는 갈릴리 호수에서도 한참을 더 위로 올라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브온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하솔 왕 아빈이 가나안 남방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고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여러 부족 왕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투에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습적으로 메롬 물가에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공격했고 전체를 다 몰살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로 인해 가나안의 북방 지역을 다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과 그 땅을 각 지파 별로 분배하여 나누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24장 중12장까지가 싸움과 점령이었다면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땅 분배와 마지막 장에 있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지역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가나안 전투의 지휘부요 전투 사령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갈이라는 지명을 뜻 깊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갈은 애굽에서의 수치가 굴러간 곳입니다. 그냥 굴러간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의 의식을 치루면서 굴러간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영적 길갈이라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광야 생활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여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영적인 전진 기지, 수시로 드나들며 영적 지원을 받는 나만의 영적 전쟁의 작전 사령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고 지원해 주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써 거룩한 전쟁에 나갈 영적 군사가 되었듯이 교회는 매번 우리들에게 거룩한 백성 됨을 각인시켜 주고, 그 흔적을 갖도록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속에 묶여 중 노릇하였던 내 삶 속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그 흔적을 내 안에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 역시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영적 자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젖어 나도 모르게 중 노릇 하였던 것을 굴러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두고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두고두고 중요한 영적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부르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에게도 길갈과 같은 영적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나와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제공해 주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와 유월절 의식을 치루며 영적 군사로 거듭 났듯이 우리가 드리는 매 번의 예배 역시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고, 영적 군사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 흔적을 갖게 되는 그런 영적 길갈의 시간과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